

2020. 7. 26. 연중제17주일



“하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마태 13,44)

교구 가톨릭사진회

제1독서 1열왕 3,56-7.12 제2독서 로마 8,28-30 복음 마태 13,44-52 (또는 13,44-46)

화답송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복음환호송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영성체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자기 생의 밭

하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누구나 자기 생의 밭이 있다. 뿌리고 심고 가꾸며 열매를 거두는 밭이 누구에게나 있다. 사람들은 저마다 소중하고 귀한 보물들을 자기 밭에 심는다. 부지런히 거름과 물을 주며 가꾸어 나간다. 희망을 지니고 열매를 기다릴 것이다.

어느 누군가 무언가를 심었겠다. 거듭 관심을 주고 애쓰더니 마침내 열매가 열렸다. 과연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 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 줄 것처럼 탐스러웠다.”(창세 1,6) 탐스러운 열매를 거두었더니, 그러나 삶은 혼란스러워졌다. 성공과 부귀를 안겨줄 것만 같던 열매는 오히려 허무함과 무기력만을 가져다주었다. 쾌락과 경쟁, 시기심과 미움, 불평과 불만의 열매는 삶에 어둔 그림자를 드리웠다. 비옥했던 그이의 밭은 어느새 거친 황무지처럼 메말라갔다.

다른 누군가도 자신의 밭을 정성스레 돌보았겠다. 소중한 무언가를 심고 가꾸었더니 마찬가지로 열매가 열렸다. 결실은 아주 조그마했다. 다른 것들과는 달리 그다지 먹음직하지도, 탐스럽게 보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이는 그 열매를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하게 거두었다. 그러자 그이의 삶엔 잔잔한 평화가 깃들었다. 기쁨과 감사함, 이해와 용서, 그리고 사랑이라는 열매는 그이의 삶에 빛을 비춰주었다. 이렇게 조그마한 그이의 밭은 작은 생명들이 기지개를 켜고

지친 새들이 와서 몸을 쉬어가는 보금자리가 되어갔다.

“하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마태 13,44)

여러분의 밭에는 어떤 보물이 숨겨져 있으신가요? 누구나 자기만의 밭이 있습니다. 삶과 마음이라는 밭이. 그러나 그 밭에 어떤 보물을 심고 가꾸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세속적인 보물을 심고 가꾸는 이의 밭에서는 세속적인 열매가 맺어질 겁니다. 반면 ‘하느님 나라’의 씨앗을 심고 보살피는 이는 ‘하늘 나라’의 열매를 거두게 되겠지요. 한순간에 맺어지는 열매란 없습니다. 매일 매일의 작은 일상에서 관심을 두고 반복되는 지향이 나중에 결실을 맺는 법이니까요. 부디 우리 모두가 조그마한 나의 밭에서, 매일의 작은 일상에서 ‘하늘 나라’의 보물을 심고 마음을 쓰며 키워나가면 좋겠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아멘!

박상우 클라오 신부
중흥동 성당



신실한 한국인들 II My faithful Koreans

하롤드 헨리 신부
1951년 2월

‘순교회Martyrdom Society’의 설립

전쟁 중 신앙이 약해진 신자들이 생겨나자 목포의 신자 젊은이들이 모여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순교회’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회원 중 한 명은 공산당에 잠입하여 총살 대상자 명단을 입수해 ‘순교회’에 건네주었다. 이후 ‘순교회’는 명단에 나열된 신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주었다. 공산주의자들은 순교회의 정체를 알아챘지만, 공산당원으로 잠입해 있던 이시도로 Isidor가 순교회에 제때 알려주었기 때문에 회원들은 산속으로 피신할 수 있었다.

목포 본당에는 복음서의 유다와 같은 배교자가 한 명도 없었다. 지목구²⁾ 전체에 걸쳐서도 채 2-3명을 넘지 않았다.

우리 신자 중에는 순교자의 자질을 갖춘 이가 많았다. 목포의 신자 두 명은 특히 그러하였다. 앞서 언급한 김 바오로와 목포 본부의 사무원이던 이 요한이 그들이다. 요한은 미사성제에 필요한 물품을 지켜내기 위해 목숨마저도 바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요한은 그의 집 앞에 자기 무덤을 파 놓을 정도로 결기를 다졌지만, 다행히도 총살은 당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공산주의자들은 그를 수차례 구타하였다.

장옥석 루치오 신부 I

한국인 신부 장 루치오³⁾는 실로 영웅이었다. 겉보기에 열여섯 살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려 보이지만, 그에게는 사자와 같은 용기가 있었다. 7월 23일 주일 아침 공산주의자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신자들을 불러 모아 새벽 세 시에 미사를 드리고는 자전거에 올라타 공산주의자들이 도착하기 바로 전에 광



6·25 당시 장옥석 신부(맨 왼쪽)와 목포 신자들

주에 도착했다. 거기서 그는 한국인 박 신부와 함께 남동 본당에 머물렀다.

인민보위부는 두 신부의 이제까지의 행적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독촉하며, 보위부 본부로 거의 매일 불러댔다. 박 미카엘 신부의 조사가 끝났지만 장 신부는 계속 취조를 받았다. 보위부의 태도가 다소 누그러졌다고 느낀 장 신부는 북동 성당에 미사를 드리러 가도 되겠냐고 물었다고 한다. 장 신부는 만일 보위부가 미사를 허락하여 실제로 북동 성당에 가서 미사를 집전한다면, 공산군들이 보위부가 두려워 북동 성당을 떠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취조 책임자는 이 말을 듣고는 격분해서 장 신부를 시내 경찰서에 억류시켜 버렸다.(다음 호에 이어진다.)

1) 「The Far East」는 대한민국에 왔던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신부들이 사목활동의 성과와 살면서 보고 듣고 느낀 바를 글로 썼고, 이를 실은 잡지다.

2) 전교지방이나 특수한 사정때문에 아직 교구로 설정되지 아니한 개별교회. 광주대교구는 1937년 지목구로 설정되어, 1957년 대목구로 승격되고, 1962년 대교구로 승격된다.

3) 장옥석 루치오 신부. 산정동 본당 출신으로 1944년 12월 23일 사제품을 받고 2000년 11월 9일 선종하였다.

“킵 배달에 유감, 그리고 감사”

작가 김훈(아우구스티노·71)을 딱 한 번 뵈었다. 가톨릭신문사가 매년 시상하는 한국가톨릭 문학상 2013년 제16회 소설 부문에 그의 장편소설 「흑산」이 선정됐고, 인터뷰 자리에 동행했다.

살짝 각진 얼굴에, 그가 항상 주목하는 ‘야만성’을 아우라처럼 풍겨서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졌다. 노련한 앵커 손석희씨의 홈그라운드인 뉴스 스튜디오 안에서도, 뻔뻔한 자세 하나로 주도권을 장악할 정도로 그는 평생을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길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부모님도, 학교나 신문사도, 종교와 권력도 그를 길들이지 못했다는 반 농도 있다. 굳이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뷰 때에도 다소 통명스럽게 ‘냉담 중’이라고 말했다. “교회가 싫거나 교리가 틀리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이긴 했다. 지금도 냉담 중인지는 잘 모른다.

그런 그가 배달노동조합적인 ‘라이더유니온’의 지난 4월 29일 총회에 나와 수첩을 들고 노상에 앉아 있었다. 배달노동자들이 처한 부당한 현실에 관심, 이어서 분노를 갖게 된 계기는 피와 짬뽕 국물이 뒤섞인 배달원의 사고였다고 한다.

길을 가다 단골 중국집 배달원이 길바닥에 미끄러져 머리에서 흐른 피가 짬뽕 국물과 뒤범벅이 된 상황, 엮어진 짬뽕을 바라보는 청년의 시선에서 그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한다. 그 청년이 대형업체 소속이라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중국집 주인의 말에 그는 분노했다고 한다.

사회적 약자에게 먹고사는 일은 전쟁이다. 나라가 잘 살면 모두가 잘 살 줄 알았다. 가난이 해결될 줄 알았다. 하지만 소득이 늘어나니 빈곤은 늘어났다. 양극화한 불평등은 더 깊어졌다. 구조적 빈곤이 고착, 세습되고 있다. 빈곤은 이제 재화의 결핍 외에도 소외와 차별, 박탈과 멸시까지 포함한다.

4차 산업혁명이나 코로나19 사태는 그 구조를 아마도 더 공고히 할 것이다. 배달의 민족인 대한민국 사회에서, 배달원들이 처한 현실은 이러한 비극적 상황을 가장 뚜렷하게 대변한다. 그리고 비단 그것이 어디 ‘배달의 세계’ 뿐이겠는가.

이를 두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배척과 불평등의 경제는 안된다” (교황권고 「복음의 기쁨」, 53항)고 말했다. 나이 든 노숙자가 길에서 죽는 것이 기사꺼리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 말이나 되는 일이라고 교황은 화를 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는 ‘무관심의 세계화’ (54항)를 질타했다. 자본과 무한경쟁의 덕목이 인간 존엄성을 압도하는 비인간적인 경제 체제를 교황은 비난했다.

김훈 작가는 창조론이나 삼위일체가 실제인지 의문을 갖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은 의심할 바 없이 분명한 진리라고 확신했다. 소설 「흑산」은 백성에 대한 핍박, 천주교도들에 대한 박해와 순교를 통해, 19세기의 야만성을 적었지만, 우리 역시 우리 시대의 야만성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당시 인터뷰를 통해 말했다.

이 시대의 야만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자는 아주 소박하고 유치한 결심을 한다. 짜장면이 늦게 도착해도 독촉 전화를 하지 않을 것이며, 너무 무거운데 가격이 싼 물건은 배달을 시키지 않을 것이다. 비대면 배달이 추세인지라 문 앞에 툭 물건을 놓고 가는, 배달 기사들의 땀 젖은 등 뒤에 대고, “감사합니다”라고 반드시 소리치겠다.

박영호 안드레아
가톨릭신문사 대전 주재기자

2020년 봉사자양성과정 ‘복음화학교’

‘복음화학교’는 복음의 정신과 가톨릭교회의 신앙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교육봉사자’를 양성하고, 교육봉사자들이 ‘성경과 교리를 바탕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도울 수 있는 단계적 봉사자 양성과정입니다.

기존 교리교사양성과정뿐만 아니라 말씀의 봉사자, 선교사 등 신자들의 평생교육과 복음화에 힘쓸 수 있도록 ‘복음화학교’로 통합하여 체계화하였습니다.

1. 복음화학교 운영방식(단계적)

※ (숫자)는 취득학점

	기초 과정	심화 과정	실습 과정
교육 목표	성경의 주제화	교의적 · 교리적 · 신학적 사고 육성	양성과정별 실무자 교육
교육 내용	(가) 이스라엘의역사(2) 성서해석방법론(2) 성경주제화 A · B(4) (나) 성서아카데미(8) -교리신학원	주제별 수업 강의-정리 · 발표-적용 (토론, 내면화 작업 등)	교재연구 양성과정 (교리, 성서)별 실무
방식	학점제(16학점)	학년제	학년제
기한	2년(최소 1년-4년, 전 학점 이수)	1년	1년
대상	① 가톨릭 교회 교육 봉사자 (예비신자 교리교사, 말씀의 봉사자, 선교사 희망자) - 세례 후 3년 이상 - 견진성사 - 주임신부님 추천서 ② 관심 있는 모든 신자	기초과정 이수자 ※ 기초과정(가) 8학점이수시, 심화과정 중에 성서아카데미(나) 2년차 수강 가능	심화과정 이수자
평가 방법	① 출결(3회 이상 결석한 자는 이수 불가) ② 과목별 평가(필기, 구두, 쪽지, 과제 등) ③ 평가는 강사의 방식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④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		
기타	과정별 연수 1회, 피정 1회 의무 진행		
신청 방법	① 광주가톨릭 평생교육원 홈페이지(www.kccei.com) 접속 → 교리신학원 [신청]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결제 [기초] 로그인 후 수강신청 및 결제 ② 전화 062) 380-2210~5 방문 접수 및 결제		

2. 2020년 2학기 ‘복음화학교’ 과정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	10:00 성서해석 방법론		
오후		14:30 성서아카데미	14:30 성서 주제 강의B
저녁	19:00 성서 주제 강의B	19:00 성서아카데미	19:00 성서해석 방법론

※ 카카오톡 채널추가 하세요!!



•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Ch 전주교 광주대교구 복음화학교

- 1 카톡 상단 검색창 클릭
- 2 스캐너로 QR코드 스캔
- 3 홈에서 채널추가

복음화학교 QR코드

※카카오톡 채널 추가를 통해 복음화학교 소식과 정보 및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소국

예비신학생 중등부는 7월 모임이 없습니다.
다음 월모임은 9.20(주일) 13:30입니다.

광주인권평화재단

2021년 풀뿌리 공익활동 지원 사업 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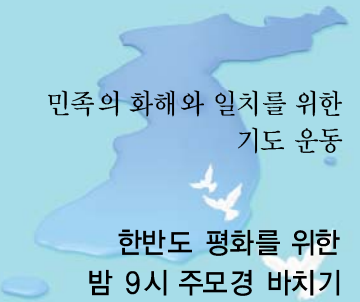
지역 내 민주·인권·정의·평화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접수: 8.31(월)까지 / 발표: 10.20(화)
사업: 2021.1~12월(1년)
지원: 사업별 500만 원 이내
신청: 인권과 평화, 환경, 지역자치 등
※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 참조
문의: 광주인권평화재단 062) 234-2737
홈페이지 www.ghpf.or.kr

청소년사목국

대학생 활동 지원금 신청

대상: 광주대교구에 교적이 있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
접수: 7.29(수)까지
지원: 1인당 40만 원씩 100여명(예정)
본당별 4명 이내 신청 가능
서류: 지원금 신청서
(주임(담당)사제 날인 필수),
재학증명서
방법: 심사 후 선정, 개별통보 및
본당을 통해 지원금 전달
문의: 청소년사목국 062) 380-2279

모두 함께합시다!



cpbc 광주가톨릭평화방송

www.kjpbcc.com FM 99.9MHz FM 99.5MHz

f 페이스북 kjpbcc99.9mhz t 트위터 kjpbcc

오늘의 강론 [월-토 (본방송) 06:50-07:00] [월-금 (재방송) 16:50-17:00]
7.27(월)-29(수) 김경주 신부(치평동 본당) / 7.30(목)-8.1(토) 박상우 신부(중흥동 본당)

'신부들의수다' [7.27(월) 14:05-14:50]



박대남 신부(비서실장), 정규현 신부(공소사목), 이창훈 신부(신안석문 본당)가
출연해 사회문제를 이야기하고 신앙고민도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7.27(월)에는
7월 한달간 보내주시던 문자를 소개하는 '문신(문자 읽어주는 신부)' 시간이
마련됩니다. 방송 들으면서 문자(#5005번, 100원 정보이용료)를 보내주시거나
나 어플 'cpbc뽕'의 '뽕'을 이용하면 무료로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어플 'cpbc뽕' 회원가입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주가톨릭평화방송 새 어플 'cpbc뽕'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1.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cpbc뽕' 어플을 내려 받은 뒤 '광주'로 지역 설정을 합니다.
2. 왼쪽 상단 '≡' 클릭-하단 '@환경설정' 클릭-로그인 클릭-가입하기 선택 후 회원가입 진행-실명인증
항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월-금 14:00)와 시사프로그램 '함께하는 세상, 오늘(월-금 17:00)'을
'cpbc뽕' 어플로 들으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뽕톡(대화방)-회원들만 사용가능'으로 보내주시는 분께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www.kccei.com

광주가톨릭문화원 가톨릭캘러리 현 책더하기사랑도서관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80 T. 062) 380-2218

신규 개설 과목 안내

'감성 일러스트' - 감정과 생각을 고스란히 담아내다(2학기 첫 개강 예정)

마카와 색연필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누구나 그릴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한 토막 감성 이야기를 일러스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간] 12주 [시간] 2시간/10시 오전반 또는 19시 야간반 [수강료] 15만 원(재료비 별도)

[강사] 윤쌍호(조선대학교 디자인학부 졸업/도겸작업실 운영)

2학기 '영화로 성경읽기' 안내

영화를 통해 성경 속 인물들을 살펴 보면서 성경을 새롭게 만나고 그 안에 내재한 믿음의 삶을
배웁니다.

[기간] 월 1회/4회 [요일] 둘째 주 목요일 [시간] 14시 주간반 또는 19시 야간반

[수강료] 4화-5만 원

[1회] 베드로 - 성소,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분

[2회] 바오로 - 선교

[3회] 토마스 - 참된 믿음

[4회] 막달레나 - 부활 신앙

[강사] 홍은영 조반나 수녀(성바오로딸 수녀회)

• 인터넷 www.kccei.com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및 온라인 결제 가능 • 문의: 062) 380-2210~5

• 교육입금계좌: 광주은행 170-107-051747 (재)광주구천주교(교육원)



사회복지법인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뽕 다섯 물고기들' 후원 안내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에서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교구 내 산하
사회복지시설, 교정사목, 병원사목,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을 돕는 데 사용합니다.

농협: 605-01-353182

광주은행: 019-107-310370

우체국: 500066-01-013298

국민은행: 551-01-1449-309

후원회원을 위해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감사미사 봉헌
- '뽕 다섯 물고기들' 회보 발송(반기별)
- 후원금품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

생애주기별기부 '나눔의 첫걸음' 안내

첫돌, 결혼, 생일, 취업, 축일, 승진, 개업, 퇴직,
회갑 등 의미 있는 날 특별한 날의 기쁨을 나치
병 환우와 미혼모자에게 나눠주세요.

소중한 나눔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문의: 062) 510-2881

기관·단체

첫 토요일 성모신심미사

일시 : 8.1(토) 09:20~11:30
장소 : 평생교육원 성당
내용 : 묵주기도, 미사(고해성사, 전대사 은총)
문의 : 파티마세례사도직 010-6490-8475

성모승천 전례미정

일시 : 8.14(금) 16:30~16(주일) 13:30
장소 : 성 베네딕도 왜관피정의집
참가비 : 19만 원
계좌 : 대구은행 504-10-102896-6
접수 후 입금
문의 : 054) 971-0722, 010-6791-0071

목포 연산동 묘지 별초신청

일시 : 9.10(목) 별초시작
신청 : 8.3(월)~31(월) 접수
금액 : 묘1기당 2만 5천 원(입금 후 전화)
계좌 : 농협 301-0123-1614-11
광주구천주교회

문의 : 061) 276-0735, 0738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내용 : (국내입양)입양상담 및 미혼모 상담
문의 : 02) 764-4741~3,
www.holyfcac.or.kr

장성 프란치스코의집 요양보호사 모집

일시 : 8.21(금)까지 서류제출
내용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 제출
문의 : 사무국장 061) 390-9600

제1회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진대전

내용 : 기쁨, 환희를 표현한 작품,
미용양속에 위배되지 않는 국내외 작
규격 : 컬러 및 흑백 11×14인치
접수 : 8.3(월)~21(금)
심사 : 8.28(금), 공개심사
시상 : 10.7(수) 15:00
접수, 심사, 시상 :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문의 : 010-3647-6148

수 도 회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성소모임

일시 : 8.2(주일) 09:30
장소 : 서울 돈암동본부
문의 : 남승원 토마스 신부
010-9937-0901
*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예수고난화개방의 날

일시 : 8.7(금) 10:00~15:30
내용 : 성사, 강의, 미사(점심무료)
문의 : 일곡동 명상의 집 062) 571-5004

예수고난화하기침묵의정

2차 - 8.11(화) 17:00~14(금) 13:00
3차 - 8.14(금) 17:00~16(주일) 13:00
장소 : 일곡동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
문의 : 062) 571-5004

본 당

봉선유안성당 사무장 채용 공고

자격 : 세례 3년 이상, 컴퓨터 작업 가능(필수),
운전면허 1종 보통
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본당신부 추천서,
교적 및 자격증 사본
모집 : 8.15(토)까지
문의 : 062) 671-1015

교회 내 성폭력 피해 접수처

전화 : 성폭력대책위원회 062) 380-2238
전자우편 : fiatvdomini@hanmail.net

빛고를 휴간 안내

하계 휴가철을 맞아 8월 2일자
주보 '빛고을'을 휴간합니다.

교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피해, 판로개척 곤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사회적
배려기업인 소상공인, 여성 기업, 장
애티 기업 등을 지원하여 천주교의 나
눔과 섬김 정신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박진수 부각

www.parkjinsoobugak.com

전통식품인 찹쌀김부각을
제조하는 장애인기업

- 장흥무산김과 나주팽야 찹쌀로
만든 저염식 영양간식이며 명절
선물로도 좋은 찹쌀김부각
5팩 20,000원
- 원도산 생다시마와 찹쌀로 만든
최고의 영양간식 다시마부각
5팩 20,000원

구입문의 : 062) 941-8551, 010-3602-6623
광주 광산구 사암로 92번길 119-19

지원당마님

모든 사람이 함께 건강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약선차,
꽃차를 만드는 장애인기업

- 심혈관 질환과 체내독소제거 등
다양한 효능이 있는 발효비트차
18,000원
- 루테인 함량이 높아 눈에 좋고
피부탄력, 미백에 좋은 메리골드꽃차
18,000원
- 성인병예방, 노화방지, 피부미용,
골다공증예방에 탁월한 연잎차
18,000원

구입문의 : 061) 761-2138, 010-4623-6363
광양시 광양읍 회양천로 23-1

올 여름휴가, 영성이 담긴 책과 함께하세요!

은총



「은총」은 인생을 돌
아볼 때 모든 것이 은
총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힘들고 고통
스러운 순간도 은총이
었다고 말할 수 있는
지, 하느님이 주신 은
총과 나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과 행동 사
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가톨릭교
회의 가르침에 따라 설명해 주는 책

최현순 지음 / 바오로딸 / 1만 2천 원

겨자씨에게 하느 나라를 묻다

「겨자씨에게 하느
나라를 묻다」는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몰라 애매한 느
낌을 갖는 비유의
의미를 우리가 겪는
구체적인 이야기들
을 통해 쉽고도 재
미있게 풀어주는 명
쾌하면서도 다정한 성경 비유 에세이



전원 지음 / 생활성서사 / 1만 3천 원

교구박물관 기증 안내

교구에서는 교구민들이 소장하
고 있는 유물(교회와 관련하여 역
사적 가치가 남겨진 물건으로 오
래된 성물, 물품, 그림, 서적, 서한,
사진 등)을 기증받고자 합니다. 기
증된 물품은 교회사연구소의 협력
을 받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바
랍니다.

문의전화 : 사무처 062) 380-2812